

북방정책 - 정권유지의 수단

'90년 하반기 정세전망

I. 범민족대회에 대한 평가

노경권의 불성실하고 정략적인 방해책동에 남·북한이 각기 따로 대회를 치르게 되었지만, 이번 범민족대회는 7천만여명의 열렬한 통일운동에 하나의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이하 통일운동)은 가슴팍한 범민족대회와 통일일의 열기를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새로운 투쟁의 토대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바로 범민족대회의 자랑찬 성과와 한계를 계승·극복하는데서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운동은 점차 우리 운동의 관련요소로 바뀌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범민족대회이 조성되었던 제반 정세 및 양상들이 유사하게(심지어는 보다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II. 하반기 정세전망

그러면 범민족대회에 이어지는 하반기의 정세와 민간의 대응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다시피, 현재 미국과 노경권의 기본정책은 내각제(이원

로 미국과 노경권의 내각제개헌과 장기집권기도로 사실상의 유일한 추진수단으로서, 보다 필사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대내외적인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안간힘을 쓸 것이며, 이것의 성과를 토대로 개헌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약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적 조건으로 인해 미·일 독점 자본과 국내자본은 국내 민중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이익의

자본의 인위적 인플레이션 정책의 소산인 물가폭등 및 임금과 수매가 인상의 역제라는 현실 속에서 이중삼중의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짐들은 현재 정권의 방위비등 '외에산증' 및 세수 확대 방침,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의 선진제국의 개방압력과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정권의 거의 무제한적인 통화증발 및 독점자본들의 부동산물 각종 투기의 조장과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축 및 정부의 지원,

아 절박한 생존의 문제인 '임금2 시간분 감축'이란 이슈를 놓고 대대적인 총단결 투쟁을 벌일 체비를 비쳐 놓고 있다.

이 투쟁에는 노동계도 밀려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계 중의 인내는 이제 극에 달했다.

한편 이같은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제도개선투쟁과 함께 앞서 보았듯이, 성과와 한계를 낀 채 새롭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민간의 통일운동도 한차원 발전 전망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노경권의 장기집권개헌의 가장 강력한 추진수단으로서 북방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 북방정책과 통일운동의 대결이아말로 향후 민간의 항방을 가늠하는 중대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즉, 미국과 노경권의 반통일적 북방정책과 민간의 통일운동이 맞서는 전선이아말로 진정한 반민주와 민주, 예측과 자주, 분단과 통일이 갈라지는 경계선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반기에 당장 실현되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준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하반기에 거세게 전개될 민중의 생존권투쟁투쟁 및 제도개선투쟁과 이의 집약적 표현인 반민자당, 반노태우투쟁에 의해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III.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적 전망

흔히 말해지듯 91~92년의 정세는 열악하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92년 정국전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미국과 노경권의 엄청난 탄압과 억압내지 무마시키려 들것이나, 이러한 미봉책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얼마전에 실시되었던 방북선정 접수 당시 접수자현황을 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른바 1천만(남한측 5백만명 추산)의 이산가족들 단 6만여명(1.2%)만이 신청함으로써 노경권의 통일외교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바 있으며, 최근의 농어민후계자대회의 양상 또한 민중이 정권에 대한 불만의 정도를 대변하고 있다. 더욱이 민자당의 날치기법안 통과와 야당의 총사퇴 및 국회공천이라는 현실은 이른바 '구국의 결단'이라던 3당통합의 허구성을 민중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민중과 대정권불신과 생존권투쟁에서 역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노동계투쟁의 투쟁이 될 것이다. 88년말의 노태우의 민생치안대책이후 가장 집중적으로 탄압받아왔던 노동운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노협·업종별 연맹(협) 등 전국적인 자주적 민주노조의 대열을 굳건히 보존강화시켜왔으며, 이제 하반기에 맞



범민족 대회와 국토순례 일지

'전면개방, 자유왕래, 실현 및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국토순례 대장정'이 지난 3일 첫 출발지인 한라산 정상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국토순례대행진은 백만청년학도의 통일열기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전면개방, '탐과 자유왕래' 탐으로 나뉘어져서 실시되었다.

'전면개방' 탐은 제주도·지리산·목포·광주·대전·원주·춘천을 거쳐 행진하고 '자유왕래탐'은 제주도, 지리산, 진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순으로 행진을 진행하였다.

목포에서 출발하여 광주, 이리틀 거치는 '전면개방 선봉대'와 진주를 기점으로 부산, 대구를 지나게되는 '자유왕래 선봉대'가 대장정을 시작한다. 7일후인 지난 10일 조국통일을 열망하며 한반도의 중간 경유지인 대전시 충남대학교에서 합류했다.

이날 오후 2시 충남대에서 '통일선봉대 환영식 및 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시민 학생 결의대회'가 민주광장에서 봉선대원, 대전대원, 남대원 학생들 1천여명이 모여 국토순례 대장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결의회를 다졌다.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며 집회 장소에 참석한 전대협 제1기 송갑석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1995년에 조국통일이 있을수있는가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통일선봉대'의 눈빛을 보라'며 '통일선봉대의 눈빛이 말하듯 통일투쟁을 민중의 힘으로 이끌자'라고 역설했다.

집회에 이어 2시간여 동안 계속된 가두시위를 마친 '자유왕래선봉대'는 청주로, '전면개방 선봉대'는 원주로 향했다. 지난11일 새벽 2시30분경 원주에 도착한 '전면개방선봉대'는 오전 11시 상지대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결사행진의 의지로 연세대 입산 캠퍼스까지 폭력경찰의 저지와 맞서며 평화행진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양 선봉대는 각각 춘천과 수원을 경유하여 지난 13일 마지막 집결지인 서울 연세대학교에 도착하여 범민족대회 성사를 고수하기위해 올라온 각 지구대원, 학우들, 시민들과 결집했다.

이날 2만여명의 시민, 학생이 모인가운데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통일선봉대 입산 캠퍼스까지 한미 연합사 항의 방탄 출정식'을 가졌다. 한편 범민족대회가 원봉되어 들어오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지원투쟁을 나갔던 남대협 소속 전남대생 정영석군이 전경과 백골단에게 잡혀 10여 분간 무자비한 집단구타를 당해 뇌에 큰손상을 입었다. 그 다음날인 지난 14일에는 '전국 통선대원들 제1기 전대협산하 학우회,발대식'이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제1기 학우회 위원장 권오중(연세대, 총학생회장)은 발족사를 통해 미군철수,콘그리트 장벽 철해를 촉구하였다.

통일선봉대 각 지방 순회하며 통일열기 확산시켜

이후 계속되는 일정속에서 오후 5시부터 제3회 전국대학생통일노래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전국 지구대원 소속 12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인 끝에 한양대 극히 '새벽'의 '은 누리 빛되어 비칠때까지'가 통일선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9시부터는 범민족대회성사를 위한 전야제 및 문화제'가 2만여명의 시민,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민족통일의 염원을 한층고조시켰다.

2부 문화제 순서에서 전노협, 전노조, 등 단체가 대거 참석,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모든 민중이 통일운동에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지는 장이 되었다.

한편 이날 15일 판문점대회를 앞두고 7천만 겨레의 강력한 요구인 판문점 남한측 구역의 완전개방, 미군철수, 핵무기철거를 미국측에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한미연합사 항의 방탄을 전개한 '한미연합사 항의 방탄 버스대' 59명은 폭력경찰에 의해 용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전 민중의 통일열기를 실천으로 나타낸 15일, 오전 8시 전민연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범민족대회 참석을 위해 대표단과 학생, 시민이 함께 판문점으로 갈것임을 밝히고, '8.15 45주년 기념비 및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간단한 집회를 가진 후 대표단 2만여명이 버스 4대에 분승하여 시민, 학생 2만여명과 함께 연세대 교문으로 출정했으며, 폭력경찰의 저지로 1시간 30분간 출발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대협 학생들은 돌과구마련을 위해 돌과 화염병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홍준기(한남대)군이 경찰이 쓴 직격탄에 의해 눈에 중상을 입는 등 1백 5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2시 민주광장에서 범민족 대회 보고 및 원천봉쇄 규탄대회'가 열렸다. 또한 전대협은 8.19일 민족 대회 보고 대회를 갖고 범민족 대회 성사투쟁을 민족 대 통일전선의 단초로 규정 짓고 '하반기 통일운동을 반미,반노태우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결의하고 아울러 통일 선봉대의 해단식을 거행했다.

이 곳에 모인 참석자들은 통선대의 해단식을 아쉬워하며 범민족 대회 성사투쟁의 선봉에서 투쟁한 통일 선봉대의 노고에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오전 10시 30분 판문점 전경투쟁을 벌였던 전대협 소속 10명의 대표단이 불광동에서 전원 연행되었고 오후 3시 30분에 청와대 전경투쟁을 벌였던 24명의 결사대도 청와대 1백미터 전방에서 5분간 7.20선언의 기반과 판문점 개방을 요구하는 연좌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되었다.

(조인성 記者)

의리문

'통일노래한마당'서, 통일상 수상한 박미정(한대 국악·1)양

"통일노래한마당을 계기로 학우들의 통일열의를 노래하고 또한 많은 학우들과 동감할수 있어 기뻛어요. 무엇보다도 함께 수고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4일 전대협추진로 연세대에서 개최된 '통일노래한마당'에서 일등상인 통일상을 수상한 박미정(한양대 음악학국악과 1)양은 수상소감을 위와 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품작인 '은누리 빛되어 비칠때까지'는 자작곡으로서 춘천에서 열렸던 강변가요제의 결선에까지 참가했으나 입상하지는 못했다.

"현재 학생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강변가요제에 굳이 참가했던 이유는 민중가요도 대중무대로 진출하여 우리의 통일열의와 의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다는 선배님의 권고때문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입장에서 작은 성과나마 기쁘게 생각하고 후배들이 더 잘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강변가요제에 참가했던 이유를 밝히는 그녀는 판데터에 대한 자랑 또한 빠뜨리지 않았다.

강변가요제 후에 받은 판데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한 많은 격려와 충고가 되었

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연신 밝은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노래 잘하고 건강하고 비결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박양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학생들의 통일 열의를 노래하고 그속에서 많은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어 기뻛어요."

먹는 것이라고 말한다. 원래 관소리 성악 전공인 그녀가 민중가요를 직접 부르려 판데터에는 '새벽'이라는 서울의 선배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현재 박양이 활동하고 있는 '새벽'은 분단을 소재로 마당극

형식의 민족극을 주로 공연하는 연극 씨름이다.

박양은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좀 바빠요. 노래도 해야하고 서클활동도 해야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유지해야하고요. 또 이번 학기에는 성적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어요. 하지만 성적이 인생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녀의 표정에서 그녀의 생활신조를 알 수 있었다.

1남3녀중 셋째딸인 박양은 통일노래 한마당에서 수상했을 때 부모님도 기뻐 해주셔서 더욱 보람을 느꼈다며, "기회만 된다면 노래운동쪽으로 기게이 나설 생각이에요. 현재 민중가요가 안고있는 모순과 기근을 보이에 허탈감마저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노래운동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노래운동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수터분한 표정과 말씨를 지닌 박양이었지만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와 노래운동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기에 노래를 통한 선전전언으로서의 그녀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株)

범례

제39회 후기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12개 분야 총61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각 분야별 보면 문학박사 2명, 정치학박사 3명, 경제학박사 1명, 경영학박사 2명, 이학박사 6명, 공학박사 3명, 농학박사 3명, 의학박사 18명, 치의학박사 12명, 한의학박사 6명, 약학박사 3명등이다. <편집자 주>

1. 학과 2. 현직 3. 학위논문 제목 4. 최종학력

◇ 문학박사 ◇

▲김제현
1.국문 2.경시대 부교수 3.사실 시조연구 4.한양대학원
▲신찬균
1.국문 2.국문일보 수석 논설위원 3.한국 만가 연구 4.동국대학원

◇ 법학박사 ◇

▲이병희
1.행정 2.경시대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3.북한의 산업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4.경희대 행정대학원
▲최영철
1.행정 2.경시대 3.한국의 특별자치단체에 관한 연구 4.서울대학원

◇ 경제학 박사 ◇

▲황신모
1.경제 2.전북산업대 산업경제학과 학과장 3.한국의 소득분배구조와 적정소득분배를 추경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 정치학 박사 ◇

▲이지철
1.정치 2.한중관계 개선책에 관한 연구 3.서울대학원
▲공천섭
1.정치 2.민자당 이리시 위원장 3.중국과 소련의 개혁 및 개방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건국대학원
▲임병국

1.신방 2.연문중재위원회 조사연구실 실장 3.한국 일간신문의 오보와 그 구제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 경영학 박사 ◇

▲이한글
1.경영 2.동원대 상경대 학과수 3.기업문화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4.부산대 경영대학원
▲백인기
1.경영 2.서서울라이온스 국제분과위원장 3.소비자의 다양성 추구에 관한 연구 4.경희대 경영대학원

◇ 이학박사 ◇

▲이중우
1.지리 2.경북대 사범대 학과수 3.취약계층별 인구이동의 유형과 특성 4.경북대학원
▲윤진숙
1.지리 2.충북대지리학과 강사 3.일제하 부산시의 도시구조 4.부산대학원
▲차은희
1.화학 2.한국과학기술원 위촉연구원 3.Sol-Ge로법에 의한 Tin / Al2O3 / Tialon복합체의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4.성신대학원

▲최승석
1.수학 2.경주대학교수 3.화물 군사법의 응용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윤영원
1.수학 2.호남대학 전임강사 3.MINIMIZING MATRICES AND THE MONOTONICITY OF PERMANENTS ON DOUBLY STOCHASTIC MATRICES 4.경희대학원

▲남정혜
1.식영 2.경희대 식품영양학과유급조교 3.식이의 n6와 n3계 불포화 지방산이 쥐의 혈장지질 저하기전에 미치는 영향 4.성신대학원

◇ 공학박사 ◇

▲신문섭
1.토목공 2.국립군산수산 전문대부교수 3.해역에서 토사투하에 따른 탁수와 거동에 관한 연구 4.충북대학원
▲심대섭
1.토목공 2.조선대 토목공학과 부교수 3.地震時 微小変位를 許容하는 各様の 信頼性연구 4.부산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 프로필

▲허강민

1.전자공 2.동아대 전자공학과 조교수 3.스펙트럼 모델링에 의한 韓國語 音聲의 포-만트 周波數 推定에 관한 연구 4.동아대학원

◇ 농학박사 ◇

▲유일웅
1.농학 2.중앙종교(주) 육종연구소 3.고추 雜性不雜性的 遺傳양식과 이의 應用 4.한양대학원
▲김세현
1.조경 2.전북대 조경학과 조교수 3.국립공원의 시각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전준
1.조경 2.경희대 시간강사 3.서울시 근린공원 이용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 의학박사 ◇

▲김현수
1.의학 2.한림대 조교수 3.사람의 직장조직내 aspartate aminotransferase 동위원소 비활성도에 미치는 magnesium이온의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4.경희대학원

▲이태원
1.의학 2.경희대 의대 임상강사 3.IgA신병증에서 IL-2 생산 및 IL-2 수용체의 표현도 4.경희대학원

▲정주호
1.의학 2.경희대 의대 대우 전임강사 3.Cefotaxime과 Urazamide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홍남표
1.의학 2.경희대 부속병원 임상연구원 3.동속도 시운전자군 전후의 각막각막전위의 변동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김서규
1.의학 2.병원개업 3.Phenobarbital이 뇌 microsome분해체의 Sodium, Potassium-Activated ATPase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4.경희대학원

▲권혁영

1.의학 2.부산시 문화병 원산부인과 과장 3.Alloxan 부어로 인한 흰쥐 췌장도 B세포의 손상과정에 관한 형태 계속학적 연구 4.경희대학원

▲홍순용

1.의학 2.충청성심병원 마취과장 3.경상북도 심정계 후 재관류가 가토 심근 보호 효과에 미치는 영향 4.경희대학원

▲서용석

1.의학 2.병원개업 3.각질형성 세포 배양 상정액이 델타인 세포 배양에 미치는 영향 4.경희대학원

▲장창국

1.의학 2.부산위생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3.급성 및 만성변인을 중심으로 한 대뇌 손상환자의 인지와 정서 장애 4.경희대학원

▲성동욱

1.의학 2.경희대부속병원 임상연구원 3.이온성 조영제의 신 손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4.경희대학원

▲유대현

1.의학 2.고신대 의학부 이비인후과 교수 3.집먼지 진드기의 알레르기원에 관한 연구 4.조선대학원

▲박문선

1.의학 2.대전지방법원 신경외과과장 3.뇌지주막하 출혈의 급성시기에서 항성유소 용해제 투여의 효과 4.경희대학원

▲전세진

1.의학 2.병원개업 3.동력성과 등장성 운동 선수에 있어서 지속적 운동이 심장의 형태 및 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4.부산대학원

▲유길조

1.의학 2.병원개업 3.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치료효과 평가분석 4.부산대학원

▲양재현

1.의학 2.부산부생병원 3.경주 척추중에서의 체성감각 유발전위 반응에 관한 연구 4.경희대학원

▲조성숙

1.의학 2.병원개업 3.발육기 생쥐의 림프절에 있어서 항원자극에